



주 제:	“부활의 삶”	“예수 부활 대축일”	2009년 4월 12일
복음 묵상:	[마르 16,1-8]	[사도 10,34 11.37-43]	[골로 3,1-4]

우리들은 부활의 영광과 은총을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절정에 이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해야 합니다. 더욱이 그러한 복음의 선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한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더욱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스승보다 증거를, 주장보다 경험을, 이론보다 실천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선교사명’ 46 항 참조)

삶을 통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활의 소식이 우리 스스로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기쁜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기쁨이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슴을 채우면 우리는 당연히 그 소식을 이웃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고 또 차면 파도처럼 밀려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먼저 부활의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증거는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한없이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 곁에 오신 구세주를 본받아 항상 겸손하게 낮은 자리를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의 영광에 앞서 죽음을 받아들으신 그리스도처럼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듯이,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북돋우며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약간의 관심과 배려만 있다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어려운 이웃이 참으로 많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우리도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며 부활 이전에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수난의 신비를 잘 알아듣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삶으로 실천되지 않는 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매년 신비스럽게 재현되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찬미와 흠숭을 드리며, 부활의 기쁨과 은총을 한껏 누리시기를 빕니다.

“이날은 주님께서 만드신 날, 우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알렐루야!” (대구 최영수 주교님 강론중에서)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조성숙 리따자매님 2개월 여정으로 한국에 가셨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김순덕 까리따스 자매님과 신행주 요세피나 자매님이 건강상태가 완전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가대 가족들은 두 자매님들이 빨리 건강이 회복되도록 주님의 자비를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성삼일 성가 연습 시간**

- 4/9(목) : 6:30 PM (미사 7:30)
- 4/10(금): 6:30 PM (미사 7:30)
- 4/11(토): 1:30Pm (영세및 전진 성사: 2:00 pm)  
: 8:00 pm (부활 성야미사: 9:00)
- 4/12(일): 9:15 AM (부활 대축일 미사) 시간엄수 참석 바랍니다.

**부활절 후 성가대 가족 모임**

- 일시 및 장소; 4월 19일 (일) 오후 5시 . 성가단장님 댁. 음식은 캐더링으로 ...

**친교를 위한 여름캠프**

일시 및 장소; 7월 10일(금)-11일(토), Henry Cowell Redwoods State Park Campground.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든 성가대 가족들의 가정에 부활하신 주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최 주남 예로니모**

✦ 복음 [마르 14,1-15,47]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의 몸에 발라 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날 이른 아침 해가 뜨자 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그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굴러 내 줄 사람이 있을까요?" 하고 하고 말을 주고 받았다. 가서 보니 그렇게도 커다란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 갔더니 웬 젊은이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들이 보고 질겁을 하자 젊은이는 그들에게 "겁내지 말라. 너희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나자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예수는 다시 살아 나셨고 여기에는 계시지 않다. 보라. 여기가 예수의 시체를 모셨던 곳이다. 자,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전하라" 하였다. 여자들은 겁에 질려 덜덜 떨면서 무덤 밖으로 나와 도망쳐 버렸다. 그리고 너무도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였다.

1분 명상

♡의로움이신 하느님♡

\*Βοηθῆσαι 수사님 관상기도 에서\*



어떤 어려운 사람이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겨움을 느끼고, 또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자주 경험한다. 게다가 모든 상황은 나의 노력이나 뜻과 관계없이 흘러가기 일수다.

이때 **현명한 자**는 사건의 불확실한 흐름의 한가운데에서 서서, 외롭게 의로움이신 하느님을 만난다. 대단히 행복하다. 그것으로 족하다.

그래서 일이 내 뜻대로 해결되고 되지 않고는 중요치가 않게 된다. 해결이 되도 좋고, 해결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끝까지 울며불며 자기 뜻대로 해결해 달라고 하느님을 목마르게 부르며, 하느님을 물고 늘어진다. 이것이 열심한 사람의 표본인 양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자신을 들볶으며 살아간다.

종교란 일이 내 뜻대로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만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오늘의 말씀 사랑:**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노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의 인내를 기억합니다(1 테살 1,3)..”